



# 김정희선생 고택

## (金正喜先生 古宅)

- 지정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9-2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후기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조선 후기의 서화가·문신·문인·금석학자로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元春)이며,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예당(禮堂)·시암(詩庵)·과과(果坡)·노과(老果) 등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의 예술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나라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김정희는 북학사상의 심화단계로서 『실사구시설』을 저술하여 근거 없는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학문을 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하며 실사구시학파를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사대부 출신 제자 및 증인 출신 제자들은 다함께 북학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교량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정희선생 고택은 흔히 추사고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 김정희의 증조부이자 영조의 부마 김한신(金漢薰, 1720 1758)이 건립한 주택이다. 김한신은 1732년에 영조의 둘째딸 화순옹주(和順翁主)에게 장가들어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는데,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옹주 또한 예도의 정이 극에 달하여 곧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며, 추사고택 뒷산 묘역에는 두 내외가 합장되어 있다.

고택은 원래는 99칸이었다고 하나, 현재 안채와 사랑채·문간채·사당채가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되어 만들어진 전형적인 중부지방 반가의 모습으로 실제 쓰임새에 맞게 문과 창을 낸 실용적인 구조의 건물이다.

고택 인근에 김정희묘(金正喜墓, 충청남도문화재자료 188호)와 화순옹주 홍문(和順翁主 紅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 월성위 김한신묘(月城尉金漢薰墓,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189호), 추사 김정희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심었다고 하는 예산의 백송(白松, 천연기념물 106호), 그리고 비지정문화유적으로 오석산(烏石山)의 원찰(願刹) 화암사(華巖寺) 등 관련 유적이 밀집하고 있다. 최근에 추사 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인근 유적을 같이 묶는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